

## 철학사

### 23 보편자의 문제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네, 오늘 우리는 초기 중세 시대를 계속해서 논의하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보편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세기에 보에티우스가 이 문제에 대해 제시한 공식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아, 좀 더 가까이 가야겠네요. 좋아요. 이제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보에티우스는 보편자의 문제를 세 가지 질문으로 제시했는데, 이어지는 논의에서 네 번째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속과 종은 실제로 자연, 즉 정신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 구성물에 불과한가? 다시 말해, 실재하는 형태가 있는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실재론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보편적 개념이나 용어의 보편적 적용과는 무관하게 실재하는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실재론적 보편론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실재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것들이 실재라면, 물질적인가 비물질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초월적인가, 아니면 이러한 보편자들이 개별자들 속에 구체화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플라톤 전통의 근본적인 차이점, 즉 초월적 형상과 내재적 형상이라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실재론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은 그것들이 개별자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별자들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질문이 추가됩니다. 보편적 개념을 개별자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보편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예시나 심상에 대한 참조 없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갈색'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특정한 종류의 갈색을 떠올리지 않나요? 제가 '사각형'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특정한 그림을 떠올리지 않나요? 보편 개념을 개별자들과 분리하여 생각 한다는 것은 특정한 예시나 심상에 대한 참조 없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 일반 관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일반 관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지 않는 추상적 일반 관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사물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보편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명목론과 구별되는 개념주의를 낳았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러한 질문들은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결과, 보편자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네 가지 초기 견해를 낳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보나벤투라는 조금 더 나아갔으며, 둔스 스코투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킨 후, 마지막으로 윌리엄 오브 오컴이 이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입장, 흔히 극단적 실재론 또는 과장된 실재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 견해는 존 스코투스 에루기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안셀무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안셀무스는 이 점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과장된 실재론은 종과 속의 형태, 즉 속(genus는 genus의 복수형입니다)의 형태가 개체와는 별개로 현실에 존재하며, 각각의 개체는 그 하나의 형태에 참여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형태는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별적인 것들 속에서도 존재하며, 따라서 개별적인 것들 사이에는 동일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경우 마다 반복되는, 수적으로 하나뿐인 동일한 형태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실재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형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 즉 결핍의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적인 인간보다 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성은 바로 그 적절한 정도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결핍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형태를 알게 될까요? 변증법과 신성한 근원에 의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플라톤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신학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관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만약 세 가지 개별적인 존재가 하나의 형상의 본질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신성의 본질 안에 세 가지 인격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보편

교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원죄나, 우리가 맛보는 빵과 포도주의 개별적인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본질은 변하는 성변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빵의 본질에서 몸의 본질로, 포도주의 본질에서 피의 본질로 근본적인 실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실재적 현존은 화체설의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실재론은 다양한 신학적 적용을 받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실재론을 매우 옹호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실재론의 주요 옹호자 중 한 명은 윌리엄 오브 샹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번역하면 빌 필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로버트 그로세테스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비 팻헤드라고 나오지만 뭐, 괜찮아요. 물론, 그게 직역이긴 하죠? 16세기 프랑스어에는 세관(séquan) 악센트가 없었고, 그 대신 s가 있었으니, 그로세테스트는 그로세타트, 즉 팻헤드, 큰 머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윌리엄 오브 샹포, 빌 필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러한 입장을 옹호했던 것 같지만 로잘린드와 아벨라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슈툼프의 저서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무차별주의라고 불리는 대안적인 입장으로 물러섰습니다. 무차별주의에서 그는 형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초월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인 현실에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각 개별적인 것은 그 형상에 참여하고, 한 종의 모든 구성원은 그 하나이자 동일한 형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개별적인 차이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동일한 형상을 공유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본질보다는 속성, 즉 우리의 개별적인 차이에서는 우리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한 종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공유한다는 사실 덕분에 인식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추상화, 즉 한 부류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으로부터의 후퇴는 내재적 실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형태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며, 변증법이 아니라 추상화를 통해 알려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입장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로잘린드는 명목론적 입장을 주장하며 그러한 대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명목론자에 따르면, 실재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초월적인 실재 형태도 없고, 내재적인 실재 형태도 없습니다. 실재하는 형태는 그 어떤 것도 마음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편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일반 관념이나

보편적 개념은 없습니다. 아, 일반적인 지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 일반 용어, 보통 명사, 인간, 갈색, 정사각형, 정의와 같은 단어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들은 일반 용어이지만, 단지 그것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만 보편적입니다. 어떤 부류의 모든 구성원, 그 용어는 특정한 용어이고, 소리는 특정한 소리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그 단어는 특정한 것이지만, 그 용어는 특정한 것들을 지칭하지 않고 전체 부류를 가리키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고 전체 부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 그 부류에 속한 모든 특정한 것들을 가리켜 차별 없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명목론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인 것은 오직 그 이름이 전체 부류를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방식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목론자에게 있어 보편적인 것은 특정한 단어, 특정한 용어의 보편적인 지칭 방식뿐이며, 진정한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보편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로잘린드는 삼신론, 즉 세 신을 믿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 신은 비슷하지만 하나가 아니라, 유사한 세 가지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보편적인 교회나 원죄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실재적 보편자 이론에 근거하여 옹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 문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은 1093년 수아송 공의회에서 명목론이 정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문제 외에도, 실재적 보편자가 없다면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자연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 도덕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덕법, 즉 자연 도덕법 이론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발전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10세기와 11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미 중세 철학 전통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잘린드가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도덕법이 인간 본성의 보편성 덕분에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본성과 본질적인 의도, 목적을 부여하는 형상 덕분입니다.

자, 명목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1세기에 명목론은 비난받았지만, 14세기와 15세기에 윌리엄 오브 오컴에 이르러 명목론이 부활했습니다. 그는 주요 명목론자로 꼽히며, 마틴 루터가 윌리엄 오브 오컴의 명목론을 수용하여 16세기와 17세기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 주의하세요. 명목론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정의에 대한 고전적인 형이상학적 설명, 즉 아낙사고라스의 올가미, 헤라클리토스의 로고스, 그리고 발전해 온 형상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인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명목론은 그리스와 중세 사상의 형이상학적 토대 전체를 파괴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부당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이제 타협적인 입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벨라르의 개념주의로 대표됩니다. 아벨라르는 로잘린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는 초월적이거나 탁월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로잘린드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벨라르는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개별적인 것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일반 관념을 발전시킨다. 물론, 추상적인 일반 관념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매우 일반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보편적 원리나 종 등을 개념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록 정신 이외적인 실재적 형태에 대한 상응하는 언급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자, 이것들이 네 가지 주요 관점입니다. 대략적인 그림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제 보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분해 봅시다. 자, 이제 이 두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 실재론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예'라고 답하려고 합니다.

극단적 실재론은 두 가지 모두에 "예"라고 답하며, 우리의 개념과 실제 보편자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증법이 이러한 개념들을 밝혀준다면, 우리는 플라톤이 꿈꿨던 것과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차별주의는 실제 보편적 개념과 실제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실제로 보편적인 것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관계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사물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근사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로, 명목론자는 둘 다 아니라고 하고 싶어하고, 개념론자는 개념에는 찬성하고 실제 보편자에는 반대하고 싶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제 생각에 그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고양이에 대해 같은 수화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음, 그럼 그게 무슨

마법일까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생각하면, 그냥 대략 고양이 모양의 무언가가 떠오르는데, 크기도 작고, 구체적인 특징은 정해져 있지 않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지만, 고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것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결국, 저는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인 것을 시각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언어적 기호나 해롤드 베스트와 음악원에서 언어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기호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기호 같은 것들이죠. 네.

음, 여러분은 상징을 사용해서 생각하죠. 상징이란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조기? 미식축구 경기에서 부르는 국가? 지도 그림?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상들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시다시피, 미국을 지도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음, 제 생각에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국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는 미국을 고층 빌딩과 할리우드 영화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저 특정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음, 그러니까 러셀이 의도한 대로, 유일하게 보편적인 것은 단어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조차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어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며, 저는 사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비로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추상적 사고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추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어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철학 입문 수업의 처음 몇 주 동안은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죠. 그 과정 기억나세요? 단어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었던 그 과정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저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단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과정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은 단어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단계에 이르면 보편 이론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다소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단어는 사고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어를 직접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로잘린드의 견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윌리엄 오브 오컴에 이르러서야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윌리엄 오브 오컴이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신명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당신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신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리.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컴은 올바른 이성의 발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여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에 기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명령 이론 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 물론, 그건 유신론적 맥락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유신론적 맥락 밖에서는, 그런 형이상학이 없다면 순수한 경험주의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알 겠어요? 순수 경험주의자는 윤리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음, 그는 결과주의자가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처럼 공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결과주의자를 '그' 라고 했지만, 이제 성별을 바꿔 '그녀' 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소 짓고 웃는 이유는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남녀 모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명사의 성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경험주의자는 도덕적 감정, 특정한 종류의 정서에 뿌리를 둔 윤리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흄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윤리적 주관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감정을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관주의와 결과주의는 실재하는 보편자를 부정하는 명목론적 관점에 뿌리를 둔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상대주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상대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모든 경험주의가 상대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의 명령에 따른 윤리가 있다면 당연히 상대주의가 아니겠죠.

그리고 공리주의자는 적어도 효용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바로 고정된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자가 없으면 상대성론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несправедливо합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는 실재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실재하는 보편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의주의죠.

왜 그래야 할까요? 추상적인 개념 없이 수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숫자 2는 특정한 2의 집합을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직선도 길이가 있지만 너비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왜 우리는 수학을 하는가?"가 됩니다. 신학을 하는 데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면, 왜 우리는 신학을 하는 걸까요? 형이상학이나 이론 과학에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흥미롭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함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아니면 존 스튜어트 밀이나 20세기 논리 실증주의자처럼 순수 경험주의자라면,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특정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그런 종류의 말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20세기 논리실증주의자인 AJ 에이어가 한 말이고, 우리는 2학기 말에 그의 책을 읽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윤리학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윤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대신,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치고, 야유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교회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경험적 일반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 개인들의 집합체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상징성을 주목해 보세요. 또는 보편 교회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여기서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거나 경험적인 일반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목론자는 두 번째 방식, 즉 경험적인 일반화를 선호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네. 제가 하려는 건, 명목론에 동의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장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싶다는 겁니다. 비록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잘린드는 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정한 존재로 보겠죠. 당신도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우리는 신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추상적인 개념 이상이길 바라요. 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음, 그를 추상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당신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로잘린드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세상 창조 이전에는 어떠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특정한 존재가 특정한 시점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특정한 시점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데이비드, 제 생각에는 당신의 질문에 추상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다른 의미에 대한 숨겨진 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미는 세상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당신은 그걸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니요, 저는 외삽, 즉 역추론을 통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보편자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약 과장된 실재론자가—과장된 실재론자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신이 보편자이고, 그 보편자 안에 세 가지 개별자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복합적인 특수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플라톤적인 형상으로서의 보편적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인 특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수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친절한 사람은 특정한 존재입니다. 친절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행동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거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행동적인 특징을 살펴보죠. 하지만 그렇다면 개념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친절함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반화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편적인 명제는 논리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명제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보편적인 명제이다." 와 같은 것도 보편적인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편 명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보편자에 대한 명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두 명제 모두 보편자에 대한 명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명제는 개별자에 대한 명제, 즉 개별자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아침에 대한 특정한 진술입니다. 둘 다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네, 바로 그 미묘한 모호함이 또 드러나는군요.

네, 크리스틴. 맞아요. 하지만 원죄 교리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든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편적인 것에 참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여의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인간성, 공통된 인간 본성, 내재된 진정한 형태가 있는데, 아담의 행위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 진정한 형태를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테르툴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서는 모든 후손의 영혼을 담고 있는 특정한 영혼이 망가졌다고 봅니다. 즉, 생식 과정에서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라두키아 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모든 후손의 영혼과 육체가 부모의 정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씨앗이 선천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원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 전승론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씨앗에 자손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상의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그는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답게 연결되는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연결성이 특정 이론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였죠. 자, 그럼 다시 보편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번 주 학회에서 누군가가 중세 시대의 원죄 논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논문은 없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가지 이론, 이러한 가지 이론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제 제가 중세 사상의 초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것은 아랍 철학자이자 이슬람 철학자인 아베로에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면서 물질은 영원하고 개인은 불멸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단호히 거부하고 플라톤주의를 고수했습니다. 사실 보나벤투라가 주장하는 것은 원형, 즉 원형으로서의 형상들이 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처럼 사고하는 신은 자신의 사고 과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적 관념, 즉 원형적 예시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원형, 즉 형상들이 종과 속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특정한 속성의 형상이기도 하므로, 하나님은 상상 가능한 모든 특정한 속성의 조합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모든 개체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은 개개인을 알 수 있으며, 개개인을 알 수 있는 신은 단순히 최종 원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개인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또한 효율적 원인, 즉 우주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은 자신의 지혜로 구상한 특정한 자질 들을 조합하여 개개인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을 창조하면서 특정한 자질을 가진 정신과 육체를 창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은 육체적 자질과 영혼적 자질, 즉 이성적 자질 사이의 구분에 대해 중립적인 공통 물질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이성적 영혼과 물질의 소멸(영혼과 육체라고 했죠?)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성적 영혼을 구성하는 물질은 육체의 소멸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불멸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해석, 즉 개인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은 창조할 수 없으며, 하물며 개인을 창조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바로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가 등장합니다—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특히 목적론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의 목적론보다 훨씬 명확한 목적론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플라톤 전통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낫다면,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을까요? 보나벤투라가 결여되었다고 여겼던 부분을 참고하여,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범론, 즉 형상은 로고스의 마음속에서 원형이자 모범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는 로고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만 있을 뿐, 영원한 관념의 모든 지혜를 구현하는 로고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시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범들을 통해 로고스 교리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신이 선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따라서 아퀴나스에게 있어 그의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만족이 최고의 선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족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덧붙이는 것은 바로 모범성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느님,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 하느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모범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내적 목적론입니다. 이제 그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알고 계시므로 다양한 종류의 개체를 창조하실 수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 물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질에서 창조하셨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싶어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알고 계시며, 미리 알고 계시기에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엑스니, 안녕하세요. 자, 그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두 주요 저서 중 하나인 『신학대전』의 일부 발췌본이 이번 선집에 실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대전』은 아베로이즘 학파, 즉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방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에 대한 반박으로 쓰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베로이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 즉 이원적 진리라는 두 가지 진리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신학대전』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아베로이스 학파는 신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신학대전』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의 유명한 다섯 가지 증명에 이르러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제를 사용하여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은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증명 결론에서 제시하는 신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신, 존재뿐 아니라 질서와 선의 근원인 신, 본보기를 알고, 마음속으로 형상을 구상하며,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는 지적인 신입니다. 이러한 신의 모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대전』의 서두에서조차 신에 대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정된 원동자보다 기독교적 신의 가능성에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두 가지이며, 그가 보나벤투라의 사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을 아시지만, 그 형상들, 즉 본보기들을 아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거나 앞으로 창조할 모든 개별 피조물을 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본보기들을 아심으로써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우주에 내재된 모든 가능성을 아십니다.

그는 원초적 물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 물질이란 형태가 없는 순수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미 어떤 형태를 지닌 물질은 형태가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정된 물질, 지정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초적 물질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이해하고 계시며, 그 잠재력은 형체를 부여함으로써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초적 물질이 이미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적 물질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입니다. 물질과 형상은 항상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그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의 것, 즉 원초적 물질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조차도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이 좋다는 그리스 속담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원초적 물질은 선합니다. 따라서 존재의 위계 전체에는 신에서부터 원초적 물질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선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초적 물질이 지닌 어떤 가능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그는 무엇으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물질은 그저 텅 빈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가능성에 형체를 부여함으로써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시는 모든 특정한 사물은 그러한 가능성 중 어떤 것을 현실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물은 고유한 가능성과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각각의 사물은 고유한 목적, 즉 가까운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끝이란 창조 세계 전체의 궁극적인 끝과는 구별되는, 그 사물만의 특정한 끝을 의미합니다 .

창조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입니다. 즉, 가까이 있는 목적, 곧 선한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별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본성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존재는 존재의 위계 안에 조화롭게 자리 잡게 되며, 이 위계에는 빈틈이나 허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상론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첫째,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이라는 것, 둘째, 이러한 원형 덕분에 모든 개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우주의 전체적인 목적, 즉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은 전체에 적절한 정도로 기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을 아시기에 개체를 아시고, 각 종 내의 개체들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개체의 형상이라 부르지 않고 본성이라 부르시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본성에는 종 전체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